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과 중국 정세
(2017년 7월 2주차)



[기사=연합인포 사진=신화(연합뉴스)]

中 6월 차이신 제조업 PMI 50.4...예상치 49.8(상보)

지난 3일 IHS-마켓이 6월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가 50.4를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49.8보다 높은 수치로 중국의 산업구조조정 기대감과 6월 중국 제조업 생산과 신규 주문의 증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번 경기확장 구간으로의 진입은 고객수요와 재고 및 고용현황으로 미루어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사=뉴스핌/사진=머니투데이]

중국 채권통 3일 개통, 세계 3대 채권시장 '활짝'

중국이 지난 3일 '채권통(債券通, 중국-홍콩 채권시장 교차거래)'을 개통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규모 면에서 세계 3위 아시아 2위에 달하는 자국 채권시장을 대외 개방하여 투자경로를 다양화하고, 중국 은행간 채권시장 진입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는 채권통 실시로 향후 중국 채권의 글로벌 채권 지수 편입 가능성 제고, 역외 위안화의 중국 본토 유입 촉진, 위안화 국제화 가속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사=뉴스시스/사진=뉴스시스]

"트럼프가 떨어뜨린 '리더 바통', 중국과 독일이 주웠다" G20 외교당국자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위축된 미국 리더십을 기회로, 중국과 독일이 일종의 비공식 동맹을 서서히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신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도드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 고문에 의하면 독-중 리더십이 현재 필요한 시점이고, 기술적 영역에서 강력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지정학적 구도에서도 자유로운 이점이 있지만, '무역균형'에서는 여전히 의견차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기사=뉴스시스/사진=뉴스시스]

시진핑 "사드, 동북아 전략균형 파괴"... 방러 앞두고 언론인터뷰

시 주석은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지난 3일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역내 전략적 균형을 위협에 빠뜨리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역내 평화 및 안정의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사드 배치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중-러 간 공동으로 혹은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AFP BBNews [기사=국제뉴스/사진=국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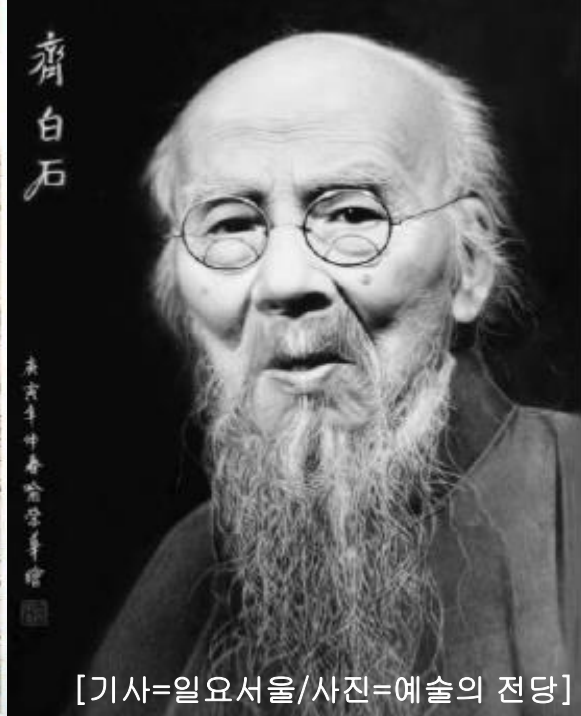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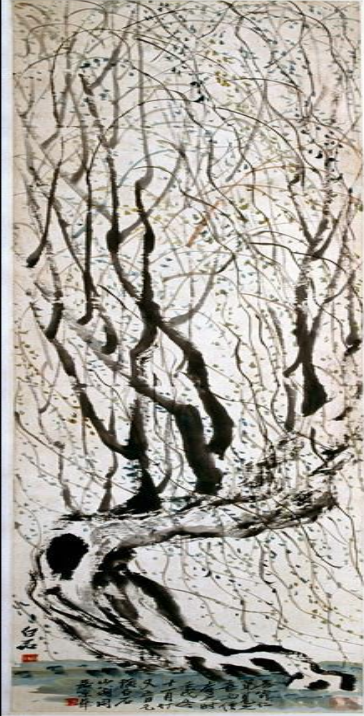
중국, 남중국해 분쟁해역 인근 항해한 미 전함 '심각한 도발'이라며 비난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미국 전함이 남중국해 해상의 분쟁 섬 인근으로 항해하자 中 정부가 군 함대와 전투기를 투입해 경고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한편 미국 관계자는 타이완과 베트남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파라셀 제도 내 트리톤 아일랜드에서 12해리 이하의 거리를 두고 지나갔다고 전했으며, 이는 분쟁 해역 내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작전은 미 대통령과 중국 주석 간 예정되었던 전화통화에 몇 시간 앞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중 “北 추가 도발 못하게 더 강한 제재”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를린에서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양국의 공동 목표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보다 강한 제재와 압박을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시 주석은 중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미국 책임론’을 주장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과 ‘혈맹’ 관계인 점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양 정상은 향후 중국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이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기사=일요서울/사진=예술의 전당]

문화교류와 공공외교의 장 만든 '특별 전시'

중국 근현대화단을 대표하는 국보급 서예가, '치바이스'의 작품전이 국내 최초로 오는 31일부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회로 한한령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중국호남성문화청, 주한중국대사관, 주한중국문화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치바이스 그림과 서예 전각 50점, 생애유물 83점 등 133점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중 관계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작품세계를 한국 미술·서예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中国·意大利咖啡拉花艺术大赛



主办方: Cafe Show

承办方: Faircafe

赞助商: SCA, Faircafe



Discover the world

China International Cafe Show

July 6 (Thur)-9(Sun), 2017

[기사=아크로펜/사진=카페쇼차이나]

제5회 카페쇼베이징, 7월 6일부터 중국 북경에서 개막

Cafe Show Beijing 2017이 엑스포럼과 중국 정부산하기관인 CIEC의 공동주최로 7월 6일부터 4일 동안 북경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카페쇼베이징은 아시아 최대 커피 교류의 장으로 성장한 서울카페쇼의 첫 번째 해외진출 전시회로서 성공적인 개최 노하우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소비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개척하고 중국 카페 문화와 트렌드를 선도하고자 하는 동행사는 한-중 커피 관련 산업과 문화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